['] 지역 **메 아 리**

정읍시, 신태인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19년 제48회 전 국소년체육대회 핸드볼 초등부 대회가 개 최되는 신태인체육관에 도비 등 1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신태인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추진 우수시군에 정읍시가 선정되어 인센 티브로 지원받은 도비 3,000만원과 시비 1 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음향시설 교 체, 환기시설 설치, 남・녀 화장실 시설개 선 등 체육관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 다. 이울러 시는 준공된 지 29년이 지난 2016년도에 체육진흥기금 6억원을 들여 신 태인체육관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붕구조물 보강과 지붕교체, 건축물 균열 보강 등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유진섭 시장은 "올 4월중에 시업을 미무 리하여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큰 규 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 제를 활성화하고 체육동호인과 시민이 체 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 선을 다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청문실, 민원인 만족 성심 다하는 친절 행정 펼쳐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 에서는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온 정성 을 다하는 친절봉사를 펼치고 있어 주 만들로부터 공간을 얻고 있어 화제다.

민원실장인 천광종 실장을 비롯 이영 범 경위, 박효진·조옥희 주무관 등 4명 이 한마음이 되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게 출입구에서부터 귀갓길에 나서는 순 간까지 친절한 언행은 기본, 불만족요소 는 없는지 일일이 챙겨가며 완전한 만 족감을 갖고 귀갓길에 나설 수있도록 정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

몸이 다소 불편한 민원이 찾아오면 바로 달려 나가 부축과 함께 말 벗이 되어드리고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 역시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자연 상승하고 있다. 민원실을 방문한 A모 주민은 "내 몸이 불편해서 눈치 보지 않을까 했는데 기우였고 나를 부모처럼 너무나친절히 잘 대해주어 기분 좋게 일을 보고 오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천광종 민원실장은 "경찰공무원의 친 절봉사는 의무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고창군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고창군민이라는 심정으로 역지사지하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심도있게 펼쳐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잼버리 준비에 한층 탄력

부안군, 잼버리지원위원회 개최… 성공 방안 모색

부안군은 2019년 첫 부안군 잼버리 지원 위원회가 22일 군청 중회의실 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잼버리 위원회 회의는 오세웅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스카우트 저변확대, 잼버리 홍보활성화를 통한 붐조성 등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와 19년 잼버리사업계획에 대해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병순 부군 수는 "지난 해 잼버리 특별법이 국 회에 통과되어 기반시설 구축 등 잼 버리 준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 다"며 "위원님들이 먼저 잼버리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혜와 역량 을 결집하여 잼버리 성공개최의 마 중물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다"고 말했다. 또 오세웅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잼버리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날까지 위원들이 잼버리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 버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 지 12일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 지구에서 169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 는 가운데 개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농특산품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세요'

관내 농특산품 8개 업체, 설명절 꾸러미 선물세트 선보여

고창군 관내 농특산품 8개 업체 들이 따뜻한 설 명절 꾸러미 선 물세트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관 심을 끌고 있다.

22일 고창군(군수 유기상)에 따르면 관내 농특산품 8개 업체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 구성을 마치고, 이번주 본격적인 판매전에 돌입한다.

이번 선물세트는 12개 제품(삼 색보리, 현미, 들기름, 복분자 식 초, 쌀조청, 마늘&양파, 후추, 땅 콩, 지주식 김, 죽염, 복분자 순 액)을 3, 5, 7만원 가격대별 3종 세트로 꾸며 군민, 재외군민, 공 공기관 등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명절꾸러미 선물세트 사업 은 고창군에서 처음 시도된다. 업 체들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엄선 된 상품을 준비하고, 군은 포장째 제작과 홍보를 담당한다.

고창군은 향후 꾸러미 선물세트 제작으로 고창 농특산품 판매가 순차적으로 확대돼 생산농가들과 가공업체들의 소득증대 등을 기 대하고 있다.

특히 농특산품 홍보와 유통·판매망 확대 등 다양한 분야까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 등 운영업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관계지는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 드린다"며 "고창 농특산품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관내 농특산품 8개 업체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홍역 예방은 올바른 손 씻기부터"

정읍시보건소, 홍역 주의 당부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홍역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홍역은 환자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10~12일의 잠 복기를 가지고 고열과 기침, 콧물, 결 막염과 함께 발진이 나타나는 전파력 이 강한 질병이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설사, 중이염, 기 관지염, 기관지 폐렴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드물게 사망을 초래할 수 도 있으며 감염 우려가 커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다. 보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MMR)률이 1차 97.8%, 2차 98.2%로 높은 편이나 접종시기가 안된 영아(12개월 미만)와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하기 전에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하고 생후 6~12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지는 "홍역 예방을 위해 선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 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15개 분야에서 약 1,200여명의 저소득 노 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이 용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연초에 기준중위소득 120%(노인·장애인 대상사업은 140% 이내) 이내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역 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은 시에서 소득수준과 우 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 다. 선정된 대상지는 제공기관에서 서 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를 사용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지급 하게 된다.

2019년도 정읍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은 24억9,200만원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26백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466백만원) 약1,200여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한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28개 제공기관에약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 전문 컨설팅 진행

고창군,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오는 2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경로당 30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측정대상은 관내 경로당 중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노후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 드, 총부유세균 등 5개 항목과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라돈을 추가로 측정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주기적인 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실 내 공기질을 개선하도록 당부할 계획 이다. 이후 재검사도 시행한다.

앞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건강취 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 120개소의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 해왔다. 어르신들은 화학물질 제거・배출능력 이 약하고 체내 축적성이 강해 환경 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아 실내 공기질 관리 가 특히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고총=김영식 기자

